

가족 적응력과 가족기능과의 관계: Olson의 순환모델의 곡선성과 Beavers의 체계모델의 선형성

The Comparison of Olson's Circumplex Model and the Beavers'
Systems Model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Adaptability and Family Function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 사 장 진 경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
Lecturer : Chang, Jin Kyung. Ph.D

〈목 차〉

- | | |
|--|------|
| I. 서 론 | |
| II. Olson의 순환모델(Circumplex model) | |
| III. Beavers의 체계모델(Systems model) | |
| IV. 가족적응력과 가족기능과의 관계: Olson의 순환모델과
Beavers의 체계모델의 비교 및 분석 | |
| V. 결 론 | 참고문헌 |

〈Abstract〉

Various theoretical models have developed in both a family research area and family therapy field on the basis of several family theories and social theori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family life and its function. These theoretical models have give rise to provide not only a framework for family therapy but also opportunities for the development of family studies. Regardless of the devotion of these theoretical models to a family therapy, however, some family therapy professions have suggested the divergency between these models and practice because the models tend to confuse therapists in their actual practices. Other family therapists, on the other hand, have claimed the convergence between these models and practice. One of the reasons for the issues of convergence and divergency in the family therapy study would be that various theoretical models

have different, sometimes contradictable, definitions and explanations for same concep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extent of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these theoretical models of practice in a way of examining family models to compare Olson's circumplex model to the Beavers systems model. Both models were based on the general systems theory. This paper consists of the explanation of Olson's circumplex model and Beavers systems model in general, respectively. Then it will investigat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se two models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functioning and family adaptability.

I. 서론

가족치료 전문가들이 오랜기간의 연구를 거치는 동안, 가족체계 및 기능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적 개념모델이 학자들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러한 이론적 개념모델은 실제 현장에서 실행하고 있는 가족치료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큰 영향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이론정립과 연구방법개발, 그리고 실제적인 가족치료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이러한 이론적 개념모델의 필요성에 부합하기 위하여 현재까지도 다양한 이론적 개념모델이 가족치료 전문가 및 가족학 학자들에 의해 계속 개발되어지고 있다(Lee, 1988; Green et al., 1985).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론적 개념모델이 가족치료에 부합하지 못하고 가족치료자들에게 혼돈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론적 개념모델과 실제 가족치료간의 병합과 분리에 관한 논쟁은 현재 가족치료연구분야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제로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의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치료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론적 개념모델 중 일반체계이론에 기초하여 정립된 Olson의 순환모델(Circumplex model)과 Beavers의 체계모델(Systems model)을 소개하고, 비교 분석함으로써 가족치료 측면에서 이론적 개념모델의 사용에 대해 재조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먼저 Olson의 순환모델이 설명되어지고, Beavers의 체계모델에 대해 서술되며, 그 다음에 순환모델과 체계모델의 비교 분석을 통한 가족 적응력과 가족기능의 관계에 대해 재조명되어진다.

II. Olson의 순환모델(Circumplex model)

가족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모델 중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거론되어지고 있는 순환모델은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Olson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개발되어졌다. 이 모델은 부부 및 가족치료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가족기능에 대한 여러 개념들로부터 귀납적으로 개발되었다. 다시말하면, Olson과 그의 동료들은 가족기능 및 가족의 역동성을 설명해주는 많은 개념들을 요인분석을 통하여 가족치료이론을 포함한 가족관계 문헌에서 50여개의 개념들을 추출하여 응집력, 적응력, 그리고 의사소통의 세 개념으로 통합하였다(유순덕,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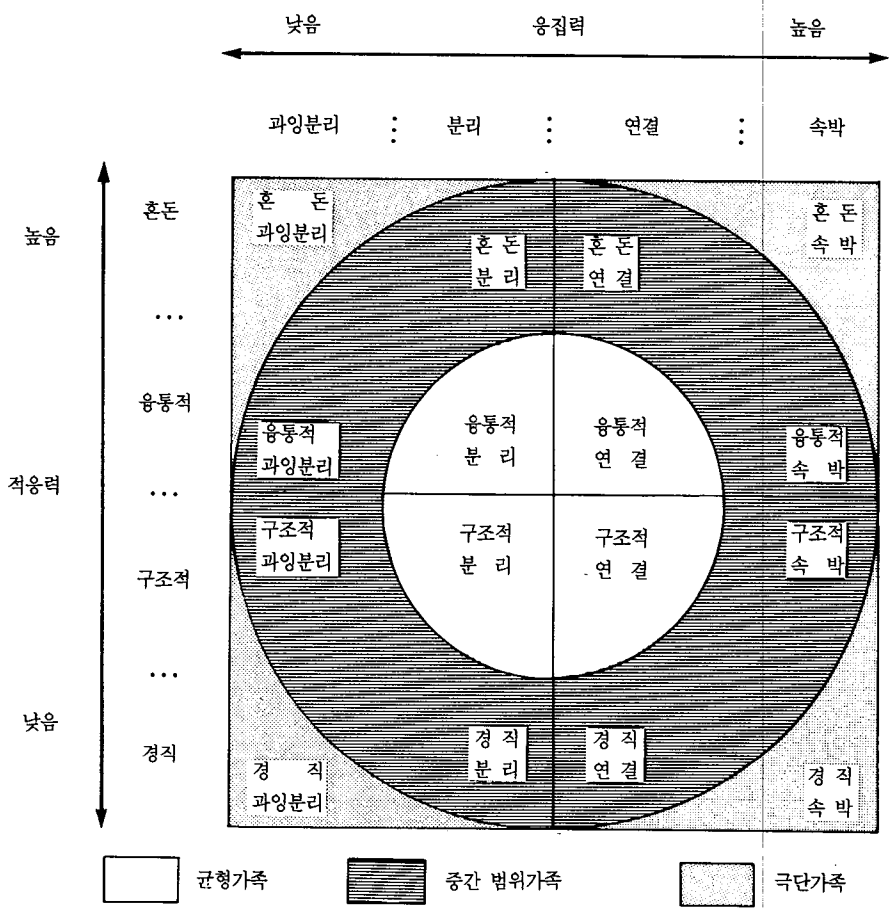
순환모델은 크게 두가지 차원(dimensions)을 제안하고 있다. 첫번째 차원은 응집력(Cohesion)으로써 가족성원간의 정서적 결합을 의미한다. 가족의 응집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1) 가족원간의 정서적유대, 2) 가족외부환경과 하위체계간의 경계, 3) 연합의 대상과 정도, 4) 가족 공동시간과 개인 사적시간의 허용정도, 5) 가족의 공동공간과 개인의 사적공간의 허용정도, 6) 가족의 공동친구와 개인의 사적친구의 인정, 7) 의사결정유형, 그리고 8) 가족전체활동과 개인활동의 보장정도의 변인들이 사용되어졌다. 이와 같은 여덟가지 변인으로 구성된 가족응집력은 연결 또는 분리된 정도에 따라 네 영역으로 분류되는데, 그 영역은 가장 낮은 단계로부터 가장 높은 단계로 구성되어진다. 즉, 과잉분리(disengaged:가장 낮은 경우), 분리(separated), 연결(connected), 그리고 속박(enmeshed:가장 높은 경우)으로 나타난다.

적응력(Adaptability)은 두번째 차원으로써 상황적 또는 발달적 스트레스에 적응하기 위해서 부부 또는 가족체계가 권력구조, 역할관계, 그리고 관계규칙을 변화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Green et al., 1985). 여섯가지 변인들이 가족적응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데 그 변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족성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형태; 2) 지도력유형; 3) 부모의 자녀훈육형태; 4) 가족성원들간의 타협(협상)능력; 5) 역할확립 및 분담; 그리고 6) 가족규칙의 명확성과 융통성이다. 가족적응력은 변화능력에 따라 네 영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 영역은 가장 낮은단계로 부터 가장 높은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 네 영역을 보면 경직성(rigid: 가장 낮은 경우), 구조성(structured), 융통성(flexible), 그리고 혼돈(chaotic: 가장 높은 경우)으로 구성되어 있다(Olson et al., 1983).

이 두 차원과 각 영역을 혼합 할 경우 열여섯가지 특정한 유형의 부부 및 가족체계가 결정되어진다. 이러한 열여섯가지 유형들 중 몇몇 유형들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 유형보다 더 빈번히 발생 할 수도 있다고 가정한다. 예를들면, 가족치료측면에서 볼때 역기능적인 가족체계를 형성하는 가족일수록 응집력에서 과잉분리를 보이며 적응력에서 경직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모델 내에서 각 유형이 결정되어지면 각 유형은 세가지 기본 그룹으로 또다시 분류된다. 첫번째 그룹은 응집력 차원과 적응력 차원 모두 중앙에 위치하게 된다. 두번째 그룹은 응집력과 적응력 차원에서 가장 극단에 위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그룹은 두 차원중에서 한 영역만이 가장 극단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이다. <그림 1>은 세 가지 기본그룹과 각 그룹에 속하는 열여섯가지 가족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모델의 기본 가족유형을 바탕으로 순환모델은 일곱가지의 가설을 추론하게 되는데, 각 가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Olson et al., 1983). 첫번째 가설은 응집력 그리고 적응력 차원과 효율적 가족기능간에 곡선관계(curvilinear relationship)를 형성하고 있다. 이 가설은 두 차원간의 균형

이 보다 적절한 가족기능과 연관이 있으며, 반면에 과잉분리, 속박, 경직, 또는 혼돈된 극단적인 상황들은 역기능적인 가족과 관련이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두번째 가설은 균형적인 가족유형은 행동반경(behavioral repertoire)이 넓으며, 가족으로써 현재 행하고 있는 기능에 대해 어떠한 변화도 원하지 않는 극단적인 가족유형과 비교할 때 변화 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많이 나타내고있다. 세번째 가설은 정상가족은 가족성원들에게 가족으로써 함께 행동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가족원 자신 혼자 행동하는 것을 장려한다. 네번째 가설은 부부 및 가족이 가장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족성원들에 대한 기술(description)에 있어서 이상적 기술(ideal descriptions)과 인지적 기술(perceived descriptions)간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가설은 부부 및 가족이 기능을 잘하기 위해서는 가족원들이 가족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상형(ideal level)과 가족원들이 가족을 어떻게 보느냐(perceived level)간에 의견일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번째 가설은 균형적인 부부 및 가족은 의사소통기법에 있어서 극단적인 가족유형의 가족들보다도 긍정적인 의사소통기법을 나타낸다. 여섯번째 가설은 극단적인 가족유형의 가족과 균형적인 가족유형의 가족을 비교하였을때, 균형적인 가족유형의 가족에서 사용되는 긍정적인 의사소통기술은 균형적인 가족유형의 부부 및 가족이 그들의 응집력과 적응력 단계를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의사소통기술은 부부 및 가족체계가 응집력과 적응력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고, 기능적으로 될 수 있도록 촉진제 역할을 하고있다. 이와는 반대로, 부정적인 의사소통기술은 부부 및 가족체계가 순환모델에서 중앙부분 - 즉, 응집력과 적응력의 균형 - 으로 이동하려는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곱번째 가설은 가족생활주기를 거치는 동안 상황적 스트레스나 발달적 변화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균형적 유형의 가족체계가 그들의 응집력과 적응력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극단적인 유형의 가족체계



출처: Olson, Sprenkle, & Russell (1979), p. 17.

〈그림 1〉 순환 모델에 의한 가족체계 유형

≡ 변화하는 것에 대해 저항한다(Olson et al., 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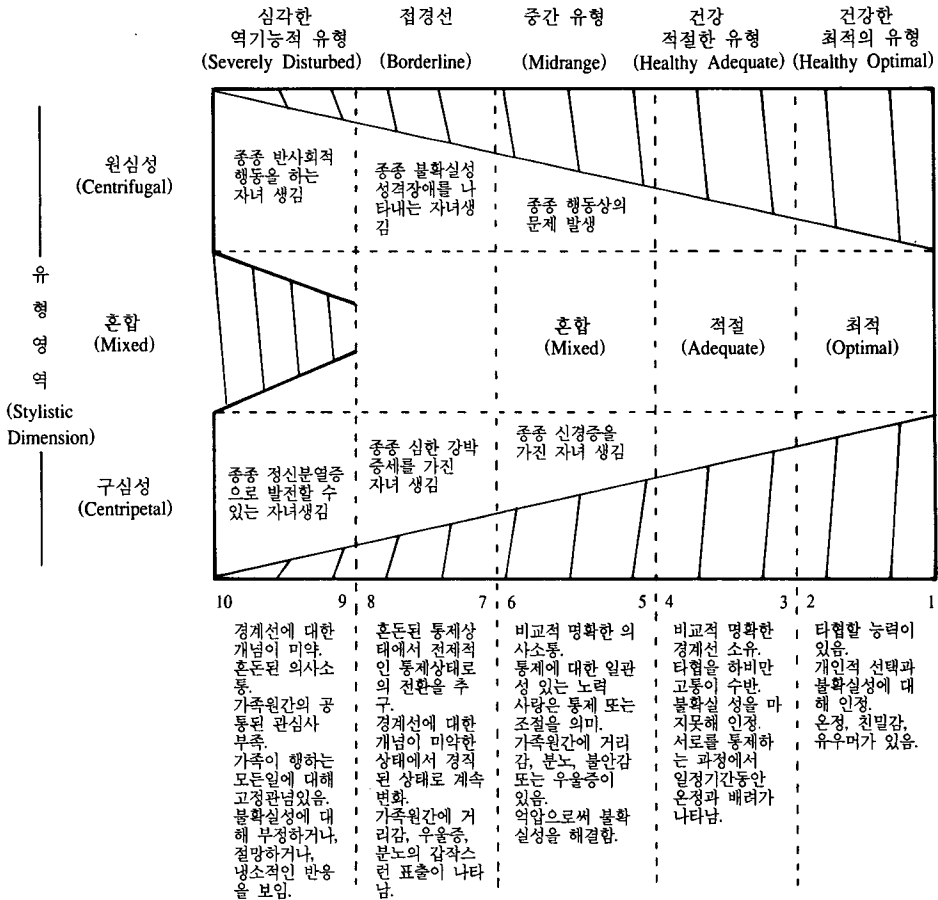
Ⅲ. Beavers의 체계모델(Systems model)

가족기능을 설명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이론적 개념모델의 또다른 하나는 Beavers의 체계모델로서 Beavers와 Timberlawn 정신의학 연구팀의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었다(Goldenberg & Goldenberg, 1994). 처음에는 이 체계모델을 Beavers-Timberlawn 모델이라고 하였다(Beavers & Voeller, 1983). 이 모델은 가족기능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일반체계개념들을 정신의

학적 그리고 조사연구적 응용을 통해서 연역적인 방법으로 개발되었다. Green과 그 동료들(1985)에 의하면, 이 모델은 가장 적절하게 기능하는 가족(optimally functioning families)은 그렇지 못한 가족과 비교했을 때 가족구조 영역면에서(권력구조의 특징, 가족성원간의 친밀성, 그리고 부모연합등) 많은 차이점을 나타낸다고 역설하였다. 그들은 또한 가장 적절하게 기능하는 가족은 그렇지 않은 가족과 비교했을 때 목표지향을 위한 타협, 가족원의 자율성, 그리고 가족원간의 애정표현 및 효과적 표현측면에서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 모델은 세상

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특정시기에 가족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적 갈등 혹은 외부적 스트레스는 그것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관찰함으로써 평가되어진다고 제안하고 있다(Beavers et al., 1983). <그림 2>는 체계모델의 도형을 나타내고 있다. 이 모델에서 가족의 구조, 융통성, 그리고 능력과 가족성원들은 한 영역에 위치하고 가족유형은 다른 영역에 위치하게 된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Beavers & Voeller, 1983; Goldenberg & Goldenberg, 1994): 1) 가족구조로서 숨은권력(covert power), 부모연합, 가족원간의 친밀성의 하부체계로 구성되어있다; 2) 신화(mythology); 3) 목표지향을 위한 타협; 4) 자율성으로써 책임감, 표현의 명확성, 공격성, 침투성의 하위체계로 구성되어있다; 5) 가족정서로서 감정, 분위기, 가풍(tone)의 범위, 동정, 그리고 미해결된 갈등의 하위체계로 구



출처: Beavers & Voeller (1983), p. 90.

<그림 2> Beavers의 체계모델(Systems Model)

<그림 2>에서 보듯이 체계모델에서는 가족기능의 정도에 따라 5점척도로 가족을 분류하고 있다. 각 영역에 소속되어있는 다섯개 척도를 구분하는 요소들

성되어있다; 마지막으로 6) 전체적인 건강상태와 병리적 상태이다. 이러한 다섯개 척도와 가족상호작용 영역이 합해져서 아홉가지 가족유형이 나타나게 된

다. 즉, 심각하게 역기능적인 가족유형(Severely disturbed), 접경선 가족유형(Borderline), 중간범주 가족유형(Midrange), 적절한 가족유형(Healthy adequate), 그리고 건강한 최적의 가족유형(Healthy optimal)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에서 적절한 가족유형과 건강한 최적의 가족유형이 건강한 가족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중간범주, 접경선 및 심각하게 역기능적인 가족유형은 점진적으로 낮은 가족기능을 나타낸다. 체계모델에서 수평축은 가족의 구조와 그 가족의 적응 및 융통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 모델에서는 또한 이질적인(negentropic) 가족일수록 스트레스 상황이나 사건에 효과적으로 더 잘 대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높은 적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은 안정된 가족구조를 가져야만 하며 동시에 가족성원의 변화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가족구조의 안정성을 상실하지 않는 상태에서 안정된 가족구조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Goldenberg & Goldenberg, 1994). 다시말하면 능력 있는 가족 또는 건강한 가족은 적응력 뿐만 아니라 자율성이 요구되어 진다는 것이다.

Beavers와 Voeller(1983)는 정보유용성 그리고 체계의 적절한 융통성을 체계적 용어내에서 이질적 연속성(negentropic continuum)이라고 정의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질성(negentropic)이 증가할수록 즉, 융통성과 적응성이 증가할수록, 가족이 스트레스 상황과 타협하고 능동적으로 기능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또한 높은 적응력은 구조자체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어진다고 하였다. 이것은 변화지향과정적 성격(morphogenic feature)과 안정지향과정적 성격(morphostatic feature)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간주되어질 수 있다.

<그림 2>에서 Beavers의 체계모델의 수직축은 가족구성원간 상호작용의 형태적 질(stylistic quality of family interaction)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상호작용유형은 구심성 상호작용유형(Centripetal), 혼합형(Mixed), 그리고 원심성 상호작용유형(Centrifugal)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가족 상호작용의 형태적

질의 관계는 연속적 직선관계가 아닌 곡선관계이다. 즉, 원심성 상호작용 유형과 구심성 상호작용 유형의 가족은 역기능적인 가족이라고 본다. 그들은 정의하기를 구심성 가족은 가족외부에서 보다는 가족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관계가 가족성원들에게 가장 만족을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원심성 가족유형의 가족 성원들은 외부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관계들이 가장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가족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관계는 가족구성원들에게 최소한의 만족을 준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Beavers & Voeller, 1983). <그림 2>에서 모델의 화살표는 상호작용 유형에서 극단으로 이동되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으로써 극단적인 유형으로 갈수록(극심한 원심성이거나 극심한 구심성) 낮은 가족기능을 나타낸다.

Beavers는 구심성 상호작용이면서 심각하게 역기능적인 가족의 경우 자녀들을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점진적으로 도피증세 또는 정신분열증을 나타내는 성인으로 성장시킬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반면에 원심성 상호작용이면서 심각하게 역기능적인 가족의 경우 자녀를 무책임, 자기중심적 증세를 나타내는 반사회적 성인으로서 성장시킬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반사회적 자녀가 행하는 자기자신을 파괴하는 행동은 부모의 무관심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라고 본다. 중간범주가족의 경우 비록 행동상의 문제와 신경증 증세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이 범주에 속하는 가족의 경우 비교적 모순점이 적은 편이다. 건강한 가족유형의 경우 극단적인 경향은 드물고 가족구조는 개인 뿐만 아니라 가족전체의 효과적인 기능에 도움을 준다(Goldenberg & Goldenberg, 1994).

Beavers의 체계모델에서 두개의 영역을 바탕으로 아홉가지 가족유형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 가족유형은 가족의 기능을 측정하는데 효과적인 자료로써 제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정신의학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용하다(Erikson, 1963; Stierlin et al., 1973). 이 아홉가지 가족유형을 설명하기 전에 Beavers의 체계모델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용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기로 하겠다(Beavers & Voeller, 1983): 자율성

(Autonomy)- 연속적 혹은 무제한적 영역으로써 가족 체계의 허용성(capacity)과 관계있으며, 자율성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각 가족성원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각 구성원에게 의사결정시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과 타인과의 타협을 강조한다; 적응력(Adaptability)- 연속적 혹은 무제한적 영역으로써 가족체계가 효율적으로 변화할 수 있고 성원들간의 차이점을 인내할 수 있는 가족의 허용능력(capacity)을 의미한다. 중심성(Centripetal)/원심성(Centrifugal)- 중심성과 원심성은 곡선관계적, 형태적 영역으로써 심각하게 역기능적인 가족은 극단적 형태를 나타내며, 가장 기능적인 가족은 양극단적인 형태를 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비 융통성(Inflexibility)- 변화에 대한 무능력 즉 변화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혼돈된 가족체계는 가장 비융통성을 지닌 가족이다; 심각한 역기능적 가족유형(Severely Disturbed)- 적응력 연속선상에서(adaptiveness continuum) 가장 낮은 단계에 위치하며, 하부체계간의 경계선에 대한 개념이 회박하고 가족성원들간에 혼란된 상태를 나타내는 데, 그 원인은 명확하고 책임있는 의사소통에 대한 인내심이 결여된 비 자율적인 가족성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접경선(Borderline)- 심각하게 역기능적인 가족유형과 중간부분의 가족유형(midrange)을 나타내는 형태로서 체계혼란을 제거하기 위해 끊임없이 비효과적인 노력을 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마지막으로 중간영역(Midrange)- 전형적으로 건전한 가족유형으로써 비교적 명확한 경계선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통제하고 통제받고 싶어하는 끊임없는 욕구가 있다.

이러한 기본정의의 바탕으로 Beavers의 체계모델은 아홉가지로 가족유형을 분류하고 있다(Beavers & Voeller, 1983). 첫번째 유형은 최적의 가족유형(Optimal family)이다. 이 가족유형에서는 친밀감이 가족성원간에 추구될 뿐만 아니라 실현된다. 각 개인의 선택과 사고가 존중되며, 타협을 허용함으로써 가족전체가 훌륭한 문제해결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각 구성원간의 개성이 개발되어지며, 성원간의 경계선이 명확하다. 이러한 가족유형 역시 갈등을 유발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신속하게 처리된다. 이 가족유형은 안정지향과정적 상태와 변화지향과정적 상태가 동시에 공존한다. 두번째 유형은 적절한 가족유형(Adequate family)이다. 이 가족유형은 좀 더 통제지향적이며, 갈등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위협과 직접적인 힘(direct force)을 사용한다. 이러한 가족들은 친밀성, 신뢰성, 그리고 자발성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적절한 가족유형을 유지한다. 또한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특히 강력하고 비 정서적인 남성상과 약하고 정서적인 여성상을 추구하는 성 역할 고정관념이 만연되어 있다. 세번째 유형은 중앙구심성 가족유형(Midrange centripetal family:cp)이다. 이 가족유형은 명확하고 독재적인 통제가 성공적으로 행해지는 형태이다. 부모에 의한 조정(manipulation) 또는 간접적인 통제는 최소화 된다. 또한 적대감의 표현은 허용되지 않으며, 단지 관심의 표현만이 허용된다.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극에 달하며, 아기같은 여성상과 강한 남성상을 추구한다. 네번째 유형은 중앙원심성 가족유형(Midrange centrifugal family:cf)이다. 이 가족은 가족성원간의 적대감, 비난, 그리고 공격등의 표현이 자유롭고, 온화함이나 관심의 표현은 가족성원들에게 불안감을 유발시키며, 부모간의 연합이 결여되어 있고, 가족성원간의 미 해결된 권력문제들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며, 모든 가족성원들에 의해서 조정(manipulation)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가족성원들은 자신과 동시에 타인도 통제하려고 노력하지만 실현되지는 못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다섯번째 유형은 중앙혼합 가족유형(Midrange mixed family)이다. 이 가족은 극단적인 형태적 위치의 영역에서 중앙구심성 가족유형과 중앙원심성 가족유형 중간에 위치한다. 여섯번째 유형은 접경구심성 가족유형(Borderline centripetal family)이다. 이 가족유형은 의사소통상에 있어서 상당한 혼돈이 유발되며, 성원들간의 강력한 통제투쟁이 내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심각한 강박관념 환자나 음식거부증 환자가 종종 이 가족유형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곱번째 유형은 접경원심성 가족형태(Borderline centrifugal family)이다. 이 가족은

분노의 표현이 공개적으로 행해지며, 규칙적인 심한 언쟁이 만연되어 있고, 부모간의 연합이 결여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여덟번째 유형은 심각하게 역기능적인 구심성 가족유형(Severely disturbed centripetal family)이다. 이 가족유형은 가족성원을 대하는 데 있어서 거칠고, 거의 접근하기가 불가능하며(impermeable), 외부에 대한 경계가 상당히 굳건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있다. 이 유형의 가족은 이웃에 의해 때때로 이방인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아홉번째 가족유형은 심각하게 역기능적인 원심성 가족유형(Severely disturbed centrifugal family)이다. 이 가족유형은 적개감 표현의 만연, 높은 의존성과 취약성으로 특징지어지며, 아동학대, 성적이상행동(sexual deviance), 그리고 극심한 약물중독 현상이 이 가족유형에서 종종 발생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가족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가족기능 모델로서의 Olson의 순환모델과 Beavers의 체계모델은 많은 차이점과 유사점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이 두 모델간의 유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Beavers & Olson, 1983; Hampson, Beavers, & Hulgus, 1988; Olson et al., 1983): 1) 두 모델 모두 가족기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써 응집력과 적응력을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순환모델과 체계모델은 동일한 구조(construct)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영역이 가족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임에는 동의할 한다는 것이다; 2) 두 모델 모두 가족을 연구하기 위한 거시평가도구이며(macro-assessment tools), 비교 지역적(cross-sectional)이고, 과정지향적이며(process-oriented), 한 개인을 평가하듯이 각 가족유형을 각 항목별로 그 증상과 행동을 규정 분류해 놓았다는 점이다; 3) 두 모델 모두 특정가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미시평가도구(micro-assessment methos)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4) 두 모델 모두 일반체계이론에서 적응력의 개념을 추론했으며, 가족적응력을 가족의 지도력, 법칙형태(style of discipline), 그리고 타협형태(style of negotiation)로 정의를 했다.

다음으로 이 두 모델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가족기능에 대한 조작적 정의면에서 그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Beavers & Olson, 1983). Olson과 그의 동료들은 변화와 적응에 있어서 곡선관계를 주장하는 반면에, Beavers와 그의 동료들은 가족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이란 측면에서 직선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부연하면, Olson의 경우는 적당한 정도의 변화능력에 중점을 둔 반면, Beavers의 경우는 성장에 초점을 두어 무제한적 변화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견해차이는 또한 적응력과 가족기능과의 관계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차이점을 나타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 두 모델의 적응력과 가족기능과의 관계정의에 따른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IV. 가족 적응력과 가족기능과의 관계: Olson의 순환모델과 Beavers의 체계모델에 대한 비교 및 분석

Olson의 순환모델과 Beavers의 체계모델의 가장 현저한 차이는 적응력 차원과 가족기능과의 관계에 대한 정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Olson의 경우 적응력이란 “부부 및 가족체계가 상황적 그리고 발달적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권력구조, 역할관계, 그리고 관계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Olson et al., 1983). 또한 그들은 “생동적 가족체계는 안정지향과정(낮은 적응력)과 변화지향과정(높은 적응력)간의 균형을 이루는 가족체계로써 안정성과 변화간의 균형있는 가족이라고 가설하고 있다(Lee, 1988). Olson의 순환모델에서는 또한 적응력과 효과적인 가족기능간에는 곡선관계가 형성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역기능적인 가족체계는 너무 안정지향과정(경직성) 상태에 치중해 있거나 너무 변화지향과정(혼돈) 상태에 치중하는 극단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반면에 기능적 또는 균형적 가족은 점진적 중앙부분(moderate central region)에 위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Olson et al., 1983).

이와는 반대로, Beavers와 그 동료들은 “증가하는

기능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적응력과 가족기능과의 관계를 정의하기를 적응력과 가족체계의 기능간에는 곡선관계가 아닌 직접적이고 직선적인 관계를 나타낸다고 주장하고 있다(Beavers & Voeller, 1983). 그들의 체계모델에서 이질성은 "구조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활용하고 폐쇄체계 내에서 발견되는 냉혹한 상태로 빠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에너지를 활용하는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p.47 Beavers, 1976). Beavers는 이질성 연속선상에서 높은 상태에 있는 능력있는 가족은 융통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구조변화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요약하자면, Beavers의 체계모델에서는 적응력과 가족기능이 직선적 관계를 나타낸다. 즉, 이질성이 많을수록(융통성과 적응성이 많을수록), 가족이 스트레스 상황에 더욱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능숙하며, 타협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태를 Beavers와 그의 동료들은 "안정지향과정적 특징과 변화지향과정적 특징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이라고 하였다(p.89 Beavers & Voeller, 1983).

위에서의 설명을 기초로 하여 두 모델간의 차이점을 요약해 보고자 한다(Beavers & Olson, 1983; Beavers & Voeller, 1983; Green et al., 1985; Hampson, Beavers, & Hulgus, 1988; Olson et al., 1983). 첫째, 순환모델은 변화지향과정(연속적 변화)으로부터 안정지향과정(무변화)으로 이어지는 연속선상에서 체계적 변화의 개념을 기초로하여 개발되어졌다. 이와는 반대로, 체계모델은 동질성(entropy, 체계소멸)으로부터 이질성(negentropy, 체계성장)으로 이어지는 연속선상에서 체계적 성장의 개념을 기초로 개발되어졌다. 둘째, 비록 두 모델 모두가 일반적 체계이론에 근거하여 개발되어지기는 했지만, 순환모델이 변화와 안정의 균형을 강조한 반면 체계모델은 성장에 그 초점을 두었다. 셋째, Beavers의 체계모델은 가족기능을 능력의 무제한적 직선관계 연속선상에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가족이 성장에 대한 무한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데 역점을 두고있다. 이와는 반대로, 순환모델은 곡선적 가족특성의 가정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족의 적응과 변화에 초점

을 두고있다(Green et al., 1985). 넷째, 두 모델간의 또 다른 현저한 차이점은 혼돈된 체계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이다. 순환모델의 경우 혼돈된 체계를 가장 변화가 심한 상태 그리고 역기능적으로 보고있는 반면에, Beavers의 체계모델에서는 혼돈된 체계를 가장 낮은 성장을 나타낸 상태로 보고 있다(Olson et al., 1983). <표 1>은 두 모델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Olson의 순환모델과 Beavers의 체계모델을 근거로 여러 선행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몇몇 선행연구가 적응력에 대한 직선적 해석을 지지하는 반면에 (Minuchin, 1974; Miller et al., 1985; Russell, 1979) 몇몇 선행연구는 적응력에 대한 곡선적 해석을 지지하고 있다(Rodick et al., 1986; Wynne et al., 1958).

먼저 적응력에 대한 직선적 해석을 주장하는 경우, Minuchin(1974)은 적응을 스트레스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라고 간주하며, 정상적 전이에 의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경험한 많은 가족들이 병리적인 상태로 오진되었을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였다. 더우기, 그는 주장하기를 스트레스가 가족체계의 처리형태나 경계선의 경직성을 증가시키고,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상태에 있는 가족의 경우만을 병리적인 가족이라고 정의내려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처리상의 경직성과 관련된 병리학의 경우에는 적응력에 대한 곡선해석보다는 직선해석이 더 적절하다고 암시하였다(Minuchin, 1974). 이를 뒷받침 하는 실증적 연구로써 Cooper, Holman, 그리고 Braithwaite(1983)가 오스트레일리아의 Canberra에 거주하는 467명의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가족응집력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 가족응집력이 낮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다시말하면, 가족의 응집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사이에 직선적인 관계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 연구라고 할 수있다. Miller와 그의 동료들은 McMaster의 가족평가도구(Family Assessment Device)의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FACES II를 사용한 결과 표본에서 FACES의 점수들이 곡선관계내에서 보다는 직선관계모델에서 병리적 가족체계와 건강한 가족체계를

〈표 1〉 가족 적응력: 두개의 상반된 모델의 차이점

	Olson의 순환모델			Beavers의 체계모델		
적응력에 대한 I. 개념적 정의	가족체계변화의 증가정도 (Morphogenesis)			구조와 융통성의 증가와 함께 가족 체계성장의 증가정도 (Negentropy)		
II. 가족기능과의 관계	곡선적관계			직선적관계 (발달과 무한적인 발전)		
III. 일반체계이론 과의 관계	체계개념	가족체계 형태	가족지도력 측정	체계개념	가족체계 형태	가족지도력 측정
높음	Morpho- genesis가 기본이 됨	혼돈	지도력결여		가장 기능적 가족	동등 (Equali- tarian)
중간	Morpho- genesis와 Morpho- stasis의 균형	융통적 그리고 구조적	동등 (Equali- tarian)	중간영역	경직	독재적 (Author- tarian)
낮음	Morpho- stasis가 기본이 됨	경직	독재적 (Author- tarian)	가장 높은 Entropy	혼돈	지도력 결여

출처 : Olson, Russell, and Sprenkle (1983), p 79.

구별하는데 더 유용하다고 결론지었다(Miller et al., 1985). 또한 김수윤과 김득성(1993)은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가족생활주기의 확대기에 있는 부부로서 부산시내에 있는 3개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의 학부모 142쌍을 대상으로 부부의 응집 및 적응과 의사소통간의 관계를 연구한 그들의 논문에서 응집 및 적응과 의사소통의 관계는 선형적(직선적)관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즉, 부부간의 정서적 유대감이 강 할수록 그리고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높을수록 부부의 의사소통은 효율적이라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순환모델의 곡선적 가설이 기각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순환모델의 부부유형 분류에 있어서 16개 구성성분에서 4개의 극단성분을 합쳐서 극단의 부부로 결정한 것은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구성성분을 합침으로써 각각

의 성질을 모호하게 만드는 결함이 있다고 하였다. 둘째는 응집과 적응의 수준을 평균 +1과 -1의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기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정상부부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극단의 부부는 발생하게 되며 이것을 역기능적인 부부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순환모델과 측정도구간의 불일치로써 척도자체가 선형성을 가지고 있어 가족기능간의 관계에서 선형적인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Rodick과 그 동료들(1986)의 부결손가정내의 모자관계 연구에서는 적응력에 대한 곡선적 해석이 더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58쌍의 모자관계에서, 청소년기에있는 아들중에서 범 죄경력 또는 정신병리적 현상을 나타내지 않은 아들

의 29쌍의 모자관계와, 범죄경력 또는 정신병리적 현상이 있는 아들의 29쌍의 모자관계를 비교한 결과 범죄경력이나 정신병리적 현상을 나타내지 않은 아들의 가족의 경우 “균형적인”가족형태를 나타냈으며, 이는 순환모델의 모든 영역에서 중앙부분에 위치하였다. 반면에 범죄경력 및 정신병리적 현상을 나타낸 아들의 가족의 경우 “극단적인”가족형태를 나타냈으며, 이는 순환모델의 중앙부분에서 상당히 외곽 지역에 위치하였으며, 그 점수들은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적응력과 가족기능관계에 대한 직선관계 해석보다는 곡선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민하영(1991)은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연구에서 청소년의 비행 정도는 가족의 적응유형과 곡선적 관계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순환모델에서의 적응력과 곡선관계를 지지하였다. 또한 유순덕(1987)은 서울시에 있는 상담소와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표집한 임상가족과 서울시와 경기도에 있는 학교 및 종교모임 그리고 마을 부녀회에서 표집한 일반가족의 어머니와 자녀를 대상으로 순환모델에 입각하여 가족의 결속력, 적응력, 및 의사소통에 관한 비교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일반가족에서는 균형을 이루는 가족이, 그리고 임상가족에서는 극단적 형태의 가족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고, 균형을 이루는 가족의 어머니가 극단수준에 있는 가족의 어머니에 비해 자녀 및 남편과의 의사소통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적응력에 대한 곡선관계 해석을 주장하였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가족 적응력과 가족기능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론적 개념 모델 중 Olson의 순환모델(Circumplex model)과 Beavers의 체계모델(Systems model)을 소개하고, 비교 분석하여 적응력과 가족기능과의 관계에 대한 해석상의 적합성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연구목적, 연구대상, 그리고 가족 적응력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순환모델에서 주장하는 적응력과 가족기능간의 곡선관계와 체계모델에서 주장하는 적응력과 가족기능간의 직선관계 모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다시말하면, 이 두 모델의 주장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Goldenberg와 Goldenberg(1994)에 의하면 Beavers의 체계모델에서 높은 적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은 안정된 가족구조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가족성원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가족구조를 변화시키면 시킬수록 능력있는 가족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을 근거로 생각해볼때, Beavers의 체계모델의 경우 변화증가에 따라, 즉 적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한 가정으로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지만 가족구조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측면에 대해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가족구조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측면은 Olson의 순환모델에서 주장하는 안정지향과정과 변화지향과정간의 균형에 의해서 설명보완되어 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연구자가 지향하는 연구형태에 따라서 두 모델 모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Olson은 가족구조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반면 Beavers는 가족구조의 성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족하위체계하에서 (예를들면, 부부하위체계, 부모-자녀하위체계, 자녀하위체계, 또는 문화적으로 다른 가족체계 및 가족하위체계 등) 그리고 어떤 가족특성하에서 두 모델 중 어느 것이 더 잘 적용되는 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그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이 두 모델의 한국가족에의 활용성에 대해서도 연구가 되어져야 된다고 본다. 이 두 모델은 여러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서구에서는 이미 타당성을 인정받은 개념모델이다(Olson et al., 1979, 1983; Russell, 1979; Beavers et al., 1985; Beavers & Voeller, 1983). 그러나 이 두 모델의 한국가족에의 타당성 및 활용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상당히 미비한 상태이다. Olson의 순환모델의 경우, 국내 몇몇 학자들에 의해서 순환모델의 한국가족에의 활용성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였다(유순덕, 1987; 민하영, 1991; 김수윤, 김득성, 1993). 반면에, Beavers의 체계모델의 경우 그 소개조차도 미비한 상태이며 체계모델을 사용하여 한국의 가족유형에 적용하여 연구한 실증적 연구도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한국가족의 가족중심적이고 권위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가정내의 위계질서하에서 Beavers의 체계모델의 적용은 서구사회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체계모델의 경우, 이질성이 증가할수록 가족이 스트레스 상황과 타협하고 능동적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국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서구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두 개념모델을 다양한 한국가족유형에 적용하여 나타난 실증적 연구결과들을 종합 분석한 후 두 모델의 한국가족에의 활용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1) 김수윤, 김득성 (1993). 부부의 응집 및 적응과의 사소통의 관계: 순환모델의 곡선성 대선형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 30-39.
- 2) 민하영 (1991). 청소년 비행정도와 부모-자녀간의 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유순덕 (1987). Circumplex Model에 입각한 한국의 임상가족과 일반가족의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3) 한국가족학연구회 (1993). 가족학: 하우.
- 4) Beavers, W.R. (1976). A theoretical basis for family evaluation. In J.M. Lewis, W.R. Beavers, J.T. Gossett, and V.A. Phillips (eds.). No single thread: Psychological health in family systems. New York: Brunner/Mazel.
- 5) Beavers, W.R., Hampson, R.B., and Hulgus, Y.F. (1985). Commentary: The Beavers systems approach to family assessment. Family Process, 24, 398-405.
- 6) Beavers, W.R. and Olson, D.H. (1983). Epilogue. Family Process, 22, 97-98.
- 7) Beavers, W.R. and Voeller, M.N. (1983). Family models: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Olson circumplex model with the Beavers systems model. Family Process, 22, 85-98.
- 8) Brock, G.W. (1986). Review: Beavers-Timberlawn family evaluation scal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4, 271-273.
- 9) Cooper, J.E., Holman, J., and Braithwaite, V.A. (1983). Self-esteem and family cohesion: The child's perspective and adjustment. Th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53-159.
- 10) Erikson, E. (1963). Childhood and Society, 2d ed., New York: Norton.
- 11) Goldenberg, H. and Goldenberg, I. (1994). Counseling Today's Families.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California.
- 12) Green, R.G., Kolevzon, M.S., and Vosler, N.R. (1985). The Beavers-Timberlawn model of family competence and the circumplex model of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Separate, but equal? Family Process, 24, 385-398.
- 13) Hampson, R.B., Beavers, W.R., and Hulgus, Y.F. (1988). Commentary: Comparing the Beavers and circumplex model of family functioning. Family Process, 27, 85-92.
- 14) Miller, I.W., Epatein, N.B., Bishop, D.S., and Keitner, G.I. (1985). The McMaster family assessment device: Reliability and validit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1, 345-356.
- 15) Minuchin, S. (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16) Olson, D.H., Russell, C., and Sprenkle, D.H. (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VI.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 69-83.

- 17) Olson, D.H., Sprenkle, D.H., and Russell, C. (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I.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types, and clinical applications. *Family Process*, 18, 3-28.
- 18) Rodick, J.D., Henggeler, S.W., and Hanson, C.L. (1986). An evaluation of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scales and the circumplex model.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4, 77-87.
- 19) Russell, C.S. (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II: Empirical evaluation with families. *Family Process*, 18, 29-45.
- 20) Speer, D.C. (1970). Family systems: Morphostasis and morphogenesis, or "Is homeostasis enough?" *Family Process*, 9, 259-278.
- 21) Stierlin, H., Levi, L., and Savard, R. (1973). Centrifugal versus centripetal separation in Adolescence: Two patterns and some of their implications, in S. Feinstein and P. Giovacchini, (eds.), *Annals American Society Adolescence Psychiatry*, 2, 211-239.
- 22) Wynne, L.C., Ryckoff, I.M., Day, J., and Hirsch, S.I. (1958). Pseudo-mutuality in the family relations of schizophrenics. *Psychiatry*, 21, 205-220.